



머리글

현대일 루도비코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루카 15,20)

출소.

얼마나 가슴 벅차게 기쁜 단어인가. 갇혀있다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같은 방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를 안 해도 되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참 행복합니다. 가족들을 뵈는 제한 없이 볼 수 있고, 손을 맞잡을 수 있습니다.

출소가 모든 이에게 다 행복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출소 후에도 삶이 막막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없거나, 반기지 않기도 합니다.

인생살이가 징역살이와 닮았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 인생도 분명 언젠가 출소를 합니다.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육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 욕망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아버지인 하느님을 마주 볼 때 명확히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1고린 13,12 참조).

그러나 그때에도 그분을 뵈 수 없으면 어쩌나, 나를 반기지 않으면 어쩌나, 내가 머물 곳이 없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루카 15,20) 예수님이 말씀하신 ‘되찾은 아들의 비유’ 말씀에서 작은아들은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 자기 뜻대로 산 뒤,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다시금 돌아옵니다.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구치소,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떠나있다가 이제야 돌아왔다고 말하는 형제자매들을 만납니다. 또한, 세례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걸어가는 모습들입니다. 물질을 쫓던 내 욕망을 채기던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기를, 끝까지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용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과 발걸음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 성찰해봅니다. 출소 후 두고 갈, 수용복과 이불들을 더 많이 가지겠다고 다투는 수용자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곧 출소할 자가 거실 내 잠자리 위치 가지고 심통 부리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쓰느라 가족들 접견을 무시하는 수용자는 없을 것입니다. 죽으면 두고 갈 재물과 지위들에만 목숨 걸고 다투다가 하느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봅니다.

11월 위령성월입니다. 언젠가 흠으로 돌아갈, 언젠가 하느님 곁으로 돌아갈 때를 상기하는 시간입니다. 내 발걸음은 하느님을 향하여 있는지, ‘출소’ 후 삶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지, 얼마나 연습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10월 7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의 주례와 김도훈 라파엘 부위원장 신부, 소년원 담당 강인석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의 공동집전으로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현대일 신부는 폭풍우로 인해 배가 위험에 처했는데,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 요나를 바다에 던진 독서 내용에 대하여 “누구의 잘못인지 찾아내고 비판하기보다는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 살면서 우리가 폭풍우를 한 번만 만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마다 서로를 비난하고 의심하면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며,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는 자신을 성찰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품속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요나는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인정하여 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다운 종교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꼭 풀어줄 때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사회가 변할 것이다”라며, “교정사목의 후원자들과 봉사자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풀어주는 사람들이다”라고 독려했습니다. 이번 미사에는 축일을 맞이하신 김도훈 신부를 위해 꽃다발 전달식과 대표봉사자들의 축가로 축일 축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도드리며 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0대 국회 사형폐지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10월 10일(목)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이상민 의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의 시민단체 연석회의의 주최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사형제 폐지는 흉악범을 사회로 복귀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감형 없는 종신형과 같은 대체 입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형폐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

된 1948년부터 1997년까지 50년 동안 총 902명, 연평균 19명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년간 한 건의 사형집행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가 폐지되고 종신형이 입법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회사목국 전체 직원 야유회



10월 11일(금) 경기도 용문 청소년 수련원에서 사회사목국 전체 직원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친교마당으로 청백 대항전, 협동 놀이를 마치고 모둠별로 모여 바비큐 식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위원회의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사목국의 소속감을 확인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여사) 집회에 참석하며

김경희 브리짓다_서울구치소 여사 봉사자

+ 찬미 예수님

제 가족은 평범했습니다. 적어도 동생이 구치소에 있다는 문자를 받기 전까진 그런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제 동생은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나마 인명사고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사회 문제고 누군가에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일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동생은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고 자신도 수치스럽기도 했을 테니 말입니다. 결코, 잘한 일은 아니지만, 동생의 그런 반응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동생은 그저 잘 지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동생 사건을 계기로 많이 반성하게 되었고 앞만 보고 살았던 것이 이기적인 일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주변을 둘러보고 싶었고, 아무래도 마음이 쓰였던 교정시설에 눈길이 갔습니다. 천주교에서 진행하는 교정시설 봉사활동에 대해 알게 된 저는 비록 신앙심이 깊진 않았지만 직접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봉사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8년 9~11월까지 교육을 받은 뒤 저는 서울구치소 천주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약 30명의 수감자가 참여한 미사는 격주로 강연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입견 없이 함께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기억하였고, 실제로 그곳에 있는 분들은 우리 주변의 이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개인적인 대화는 할 수 없었지만, 친근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성가를 부르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무심했던 과거를 참회하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봉사하고 기도하며 너무 상처받지 않고 바르게 변화되길 기원했는데, 변한 건 저 자신입니다. 미래만 바라보며 열심히 사는 게 전부다 아님을 깨달으며,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 집중하고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고, 그들도 저만큼, 아니 저 이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묵묵히 이겨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을, 세상 속에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도 깨닫게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수용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클 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도 그들 스스로 잘 이겨낼 것이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끄실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미사와 집회에 참석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늘 반갑게 맞아주시는 신부님, 함께하는 선배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불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평 남짓한 깔끔하고 아담한 큐브 스테이크 주방에서는 사장님이 분주히 요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축산물 시장에서 선별된 육질이 좋은 고기와 직접 만든 수제 소스가 함께 준비되어 나왔습니다. 알맞게 구워진 큐브 스테이크의 향과 통통한 새우가 올려진 볶음밥, 아삭 소리가 날 것 같은 튀김들이 눈과 코를 사로잡았습니다. 보기에도 좋은 음식들은 맛도 좋았습니다. 양념과 소스가 어우러진 큐브 스테이크는 먹기 좋은 크기에 부드럽게 넘어가서 아이들도 함께 먹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인터뷰하기 위해 찾아간 그 시각에도 매장엔 손님들과 배달주문은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설 틈 없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노점에서 큐브 스테이크를 운영하다가 간단한 식사이지만, 손님들에게 좀 더 편하게 다가가고 늘 찾을 수 있는 매장을 운영하고 싶어서 창업하게 되었다는 전OO분을 만나보았습니다.

* 기쁨과희망은행을 알게 된 지 얼마나 되었나요?

교정시설 내 출소 전 교육을 통해서 기쁨과희망은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출소하고 정말 막막했지만, 신청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가진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입니다. 창업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창업한다고 바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므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유자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 년 반 동안 일을 다니며 자금을 모아서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기쁨과희망은행 창업교육을 받고 실제로 창업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엄청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무 쪽이나 SNS 쪽엔 무지했습니다.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었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인해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 이 업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교정시설에 다녀오기 전에 허가된 먹자골목 노점에서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전문성 없이 시작했는데 장사가 엄청 잘되었습니다. 스테이크를 전문적으로 구워야겠다는 생각에 저녁에 끝나고 레스토랑에 가서 무급으로 일을 배웠습니다. 출소 후 기존에 하던 요식업을 정착해서 만들고 싶었습니다. 매장을 갖추고 영업을 하기 위한 창업을 일 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 창업하고 제일 힘들었던 점은? (어려웠던 점)**

여유자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자금이 조금 더 넉넉했으면 하는 바람과 좀 더 넓은 곳에서, 좀 더 좋은 장소에서 하고 싶기도 합니다.

*** 창업을 하고 제일 보람되었을 때는?**

저와 같은 입장을 가진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불안해합니다. 제가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이 제가 자리 잡는 것을 보고 안심합니다. 주변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 향후 목표가 어떻게 되나?**

배달하는 업종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처음 제가 배달주문을 시작할 때는 주변에 없었습니다. 요즘 추세는 고객들이 매장에서 드시지만, 배달을 많이 이용합니다. 점심시간이나 학생들 학원 가는 시간 쯤에 배달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업체와는 차별화된 도시락 포장이나 구성을 계속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맹점을 몇 곳에 내었습니다. 일반 가맹점은 본사 주방에서 조리법만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실제 매장에서 1주일 실전을 겪고 매장을 개점합니다. 구워내고, 튀겨내는 것은 단순하지만 이 많은 메뉴가 한 번에 들어왔을 때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게 훈련합니다. 그리고 축산물시장에서 고기를 선별하고, 다듬어진 고기와 직접 만든 소스를 패킹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 완벽하게 포장해서 각 지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에게는 가맹비만 받고 이익이 생기는 것은 가맹점주에게 돌아갑니다. 저를 찾아주는 분들의 창업을 도와 더불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쁨과희망은행에 바라시는 점은?**

제 모친이 천주교 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대출금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먼저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늘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저는 늘 감사하고 고마운 곳이라, 바라는 점은 없습니다. 개선해줬으면 하는 것은, 사업성이 좋은 사람들에게 대출이 되고, 회수율을 높여서 좀 더 계획을 세우고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필요한 사람들도 있으므로 급하게 대출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립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쁨과희망은행의 도움이 큼니다. 감사합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은 2008년 6월 25일 창립하여 출소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대출 및 자본금 지원을 통해 꿈과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설계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릴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무담보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5일 동안 진행되는 창업기초교육을 수료하고, 창업기초교육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현장실사 후,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창립 이후 218명에게 창업과 자활을 위해 약 3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1일(월)부터 22기 기쁨과희망은행 창업 기초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동안의 아픔들을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

10월 10일(목) '세계 사형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명동 가톨릭회관 앞마당에서 2019 사형제도 폐지기원 생명·이야기 콘서트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를 비롯해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저자 공지영 작



생활성가 가수 나혜선



밴드 '자전거 탄 풍경'



가수 이은미



'생명의 소리' 합창단

가, 생활성가 가수 나혜선, 국가인권위 사형제 폐지 명예대사인 가수 이은미, 밴드 '자전거 탄 풍경', 장기기증자 유가족과 수혜자, 의료진으로 구성된 '생명의 소리' 합창단 등이 출연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와 노래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자유롭게 콘서트를 즐겼습니다.

현대일 신부는 "특pecially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살 이유가 되어주기 위해서도, 사형제를 막는 것이 조금이나마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사형보다 사랑이 범죄 억제력이 더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인류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인간 신체에 대한 폭력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사형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논란은 무의미하다"라며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이 바로 사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배기현 주교님의 선창으로 "사형보다 사랑이다"를 함께 외쳤습니다. 참혹한 사건들로 사형을 부활시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기를 기원합니다.

세계 사형폐지의 날은 NGO들과 지방정부들의 연대체인 세계사형반대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Death Penalty)에 의하여 2003년에 제정되어 매년 10월 10일에 이를 기념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드리는 글인지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뒤엉켜서 자꾸 입에서 맴돕니다.

두서없는 글일지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와 같이 낮은 곳에 있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저는 불교를 앞에 두고 종교 공부를 하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에 갈등을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천주교인을 만나 천주교로 개종을 한 뒤 두 차례 천주교 집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도통 마음을 가다듬을 수가 없고 귀신에게 홀리길라도 한 것처럼, 제정신으로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신부님! 제가 정말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알려주세요.

어리석은 질문 같아오나 정말 ‘믿음’이란 것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

진심이고 진심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도 하느님의 자녀로, 새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신부님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글을 쓰고 나니 작게나마 뭔지 모를 숨통이 트이는 듯합니다.

2019. 10. 14

장OO 올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가 김도훈 라파엘 부위원장 신부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19년 12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빛소식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12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9/13~10/12)

9월~10월에는 정보경 베네딕다 자매님, 김일평 토마스 형제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경희 다리아 자매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 알림

- 11월 4일(월)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 / 광탄 전진 성당, 나자렛 묘원
- 11월 5일(화)~6일(수), 19일(화)~20일(수)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인성교육 / 서울남부구치소
- 11월 11일(월)~15일(금) 2019 기쁨과희망은행 22기 하반기 창업교육 / 교정사목 센터
- 11월 14일(목)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11월 17일(일) 가난한 이의 날 / 명동성당 앞마당
- 11월 22일(금)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19차 이사회 / 교정사목 센터
- 9월 6일(금)~11월 29일(금) 2019 제21회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 / 교정사목센터



후원 계좌번호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신청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 25,36)